

일본 축산 업계를 돌아보고

황 인 옥
<서울시 산업과 축정계장>

머리말

미국농무성 지정단체인 미국유지협회(NATIONAL RENDERERS ASSOCIATION)의 초청을 받아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15일간) 한국의 축산관계인 9명(공무원 2명 농협 1명 사료협회 및 사료공장 6명)이 일본의 축산 및 사료업계를 시찰케 되었다. 일본은 기후풍토와 생활양식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언어가 소통되었기 때문에 별로 불편없이 여행을 하였고 특히 안내자가 한국에 자주 다녀가서 우리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고 될만한 곳을 선정하여 일정이 짜여졌고 우리와 기거를 같이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보람있는 견학이 되었다.

그러나 너무 짧은 기간내에 관동지방에서 동북지방을 거쳐 북해도까지 비교적 많은 곳을 돌아 다녔기 때문에 한가지 한가지 깊이 검토하고 자세한 통계숫자까지 알아오지 못한 것이 유감이나 모두가 우리들의 평소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불과 며칠동안 돌아본 일본을 일방적이고 편견적 일는지 모르나 내 나름대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보고코저 하는 바이다.

※ 사료사정

축산업의 기본인 사료문제(배합사료원료)는 일본에서도 가격상승과 원료의 구득난으로 고민하

고 있었으나 우리나라 보다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았다. 단백질사료의 80% 이상을 국내자원으로 충당하고 쌀(고미)이 남아 배합사료원료의 10%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도입원료를 많이 확보하여 양축가는 배합사료의 품질을 믿고 쓸수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부러웠다.

※ 배합사료공장

우리 일행은 일산 100%~400% 규모의 배합사료공장 4개소(농협계통공장 2개소 민간인 공장 2개소)를 견학하였는데 일본에서 중간규모의 공장이라는 것이다. 시설은 우리나라의 근래시설한 큰 공장과 별차가 없었으나 특이한 시설은 공장마다 우지첨가시설이 갖추어졌고 우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규모“짜이로”가 설치되어 도입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운반수단은 60% 이상을 “벌크”차 또는 “트랜지 박스”로 목장(농장)까지 직접 운반하여 목장마다 설치된 Bin(사료탱크)에 옮겨 저장이용함으로써 사료가격의 5% 이상을 절감하고 있었다. 지대사정이 나쁜 우리나라에서도 포장방법 및 운반수단의 개선이 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배합사료원료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좀 다른 것은 곡류원료중 도입 옥수수과 수수를 각각 30%씩 같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고 소련에서 소맥피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공장도 있었다. (수입가격 톤당 28,300엔(원

화 42,000원) 배합사료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비싼 값이 있으나 질적으로 계산하여도 비싼는지?

기타 배합사료의 등록제도, 검사제도도 우리나라와 비슷하였고 판매가격도 행정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었다. 일본의 배합사료는 농협계통 공장에서 45%, 민간인공장에서 55% 생산공급되고 있는데 민간인공장 사료도 거의 농협을 통하여 공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농협계통 사료공장의 배합비율은 그현(도)의 경제농협연합회에서 컴퓨터에 의거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배합사료임을 입증해 주고 있었다.

※ 축 산

일본축산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도시근교에서 많이 하던 일본의 축산이 공해관계로 농촌지대로 밀려나고 있고 국민소득의 증가 및 노동력의 부족등으로 수익성이 적은 농축산업에서 타업으로 전업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타산업인 공산품을 다양수출하고 공해요인이 많고 노동력이 많이 요하는 타산업의 농축산물은 외국에서 수입토록 정책을 전환하는 것 같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우육, 돈육 수출전망이 밝다는 것이다.

※ 낙 농

일본낙농의 발상지라는 간엽현(유우사육두수 82,000여두)과 북해도(402,600두)에 가서 몇농장(목장)을 견학하였다. 유우의 등록제도, 인공수정제도가 아주 잘 되었고 거래제도도 상대거래에서 경매거래로 전환되어 가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유우의 거래상황을 보기 위하여 간엽현 남쪽에 위치한(동경에서 150km 지점) 관산시 안방군 안방축산농업협동조합 가축시장에서 개최하는 유우경매시장을 견학하였는데 이곳 유우시장은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시되며 많은 특수성우가 출몰되었고 혈통등록사항 체중 년령 특성등이 기재된 상세한 조서가 사전에 배포되고 오전중에는 출몰우 전시 오후에는 공개경매되는 데 공정한 시세로 거래되고 있었다.

거래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비싼편이었고 일본

에는 이런 유우거래시장이 각현(우리나라 도단위)마다 2~3개소씩 개설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전 한우의 거래제도를 이런 경매제도로 변경시도하였다가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중단되었는데 생산자를 위하여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 북해도의 낙농

북해도의 낙농은 널리 소개되어 있어 어느정도 짐작은 하고 갔으나 직접 가보니 과연 초지농업이 고도로 발전되고 목초위주의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북해도 인구 약 500만명에 유우통계는 402,600두(농가당 평균 유우사육두수 16~17두) 기온은 최고 30°C 최저 -30°C로써 우리나라 기후보다 좋지 못한데도 초지농업이 극도로 발달되었다.

개척당시의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의 북해도의 낙농은 간단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0여년간 오직 자기들의 피와 땀 그리고 강한의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개척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좋은 기계도 없었고 그 무성한 산야를 삽과 곡경이로 나무뿌리를 캐고 풀을 가꿔 오늘의 비옥한 북해도를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낙농여건은 그 보다는 몇배 유리한데도 부진한 것을 보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꼈다.

※ 양 돈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축산이 규모가 기업화 경향이고 특히 양돈 양제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가족끼리 하고 있는 곳이 많았으나 시설의 현대화(기계화)로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었다. 농가에서 비육돈의 경우는 300~700여두(노동력 2~3인) 종돈업을 영위하는 농가는 30~50두 기르고 있었고 비육돈을 가진 농가는 거의다 자가종돈을 확보하고 자기가 생산하는 자돈을 바육시키고 있었다.

양돈 사료는 잔반을 이용하는 농가도 있었으나 대다수가 완전 배합사료를 이용하고 있고 사료의 품질이 아주 우수하였다. 특히 자돈사료(젖메기 및 어린돼지 사료)의 품질이 우수하여

생후 10여일부터 인공유를 급여하고 30일이내에 완전히유하여 연간 2.7회전 종돈1두가 연간 생산하는 자돈수가 평균 22두까지 이른다는 것이다(분양자돈의 거래제도는 유우와 같이 농가에서 직접 상대거래도 하고 있으나 각지역의 가격시장에서 경매방법에 의거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파는때도 농협에서 수집출하 하고 사는때도 대개는 군농협에서 사다 인식시켜 준다는 것이다.

품종은 「렌드레스」 「요크샤」 「햄프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육돈용은 (L×Y 또는 L×H) 이라고 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의 중량은 최하 25kg~60kg 까지의 큰 자돈(육성돈)이며 가격은 평균 14,000원~15,000원(원화 21,000~22,5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육돈가의 소득은 순배합사로 이용시는 두당평균 3,000~5,000엔정도(원화 4,500~7,500원 사료의 일부를 잔반으로 대체하고 자돈을 자가생산시는 평균두당 10,000엔(원화 15,000원)의 소득은 없다고 한다.

※ 양 계

일본의 양계는 많이 보지는 못했으나 우리나라 전업양계보다 특별하게 앞선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가 다른 것은 양계처리가 기계화 되고 농촌에 노동력의 부족으로 작 농가에서 육추를 하지 않고 군농협에서 공동육추하여 140일령(초산후)에 각농가에 배부하고 있었다. 산형현경영직영 양계센터의 병아리 구입가격은 170원(원화 250원) 140일추 농가배부가격. 850원(원화 1,275원)이었다. 그리고 양계산물의 판매는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고 있었고 판매가격 청산시 축산물 및 사료가격안 정기금을 공제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었다.

※ 도축장 및 식육시장

동경의 도립식육시장 및 도축장과 산형축산공사를 견학하였는데도 도축장시설은 서울에 있는 시설과 비슷하였고 특수시설은 오수처리를 기계화하였고 악취를 제거한 탈취시설까지 완비하여 공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돈박피를 기계로 하고 있으며 도축 전가축의 목욕(샤

워) 시설이 완비되어 깨끗한 가축이 도살되고 있어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도부 및 가공기술들의 칼질 기술은 한국 기술자보다 많이 뛰지고 있었다.

일본은 식육의 등급제 판매가 철저하여 도축의 최후과정에 등급사가 배치되어 식육의 등급을 사정 점인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도축된 식육은 주령을 시켜(돈육은 도축즉시) 식육시장에 상장되어 경매방법에 의거 거래되는데 등급에 의거 공정한 시세가 형성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도매시장법이 제정 공포되어 곧 시행될 것인바 변측도매시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일본은 모든 물가가 비싸지만 특히 식육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비싸다. 특급 로-스고기 한근 사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을 주어야 한다. (동경 시내의 식육소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단 위	가 격	비 고	
우육	특급	100g	1,000~500엔	원화로 환산하려면 약 50% 가산하여야 함
	보통	"	400~250 "	
	하급	"	200~150 "	
돈육	특급	"	200 "	
	보통	"	150~100 "	
	하급	"	100~80 "	

우리나라의 돈육이 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동경식육 시장의 관제자에게 한국돈육의 평을 드러보았더니 호평을 하고 있어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써 처음 보람을 느꼈다.

맺는 말

여행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진국의 축산 및 사료업계를 직접 보고 듣고 「피부에 느끼는 산 공부」를 하였다」고 표현하겠다.

「百聞이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의 잘하는 일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하겠다. 행정하는 사람 축산하는 사람. 모두 선진국을 견학하는 것이 축산진흥의 지름길이라 생각되어 관제자의 선진국시찰(견학)을 파감하게 시켰으면 마음 간절하다.